

# KOICA 민관협력사업 고등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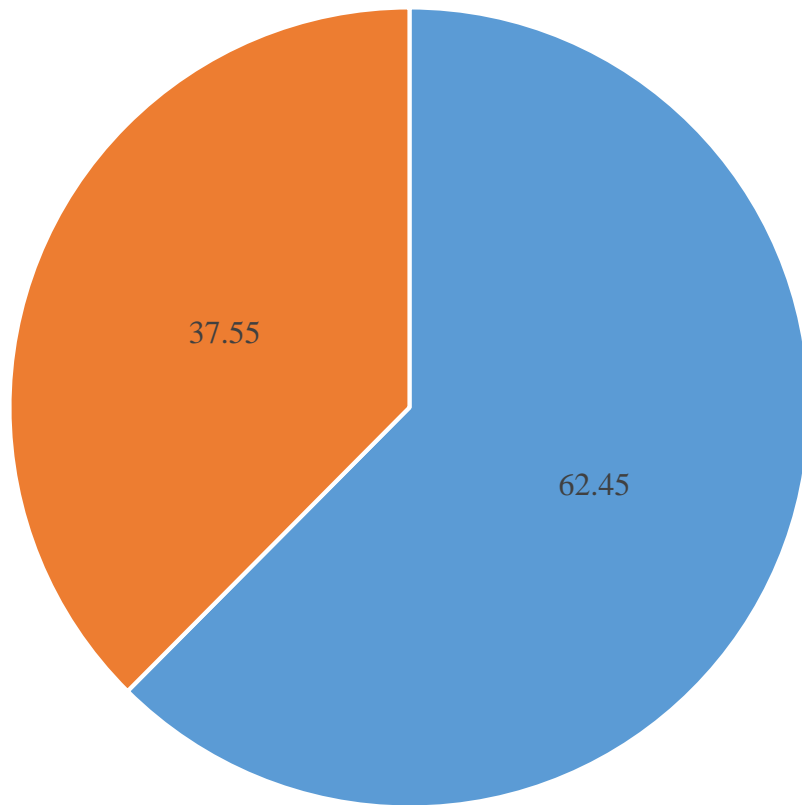
2018.5.30(수)  
시민사회협력실

**I .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II.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III.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I.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 KOICA 지원금 ■ 파트너 분담금

## ✓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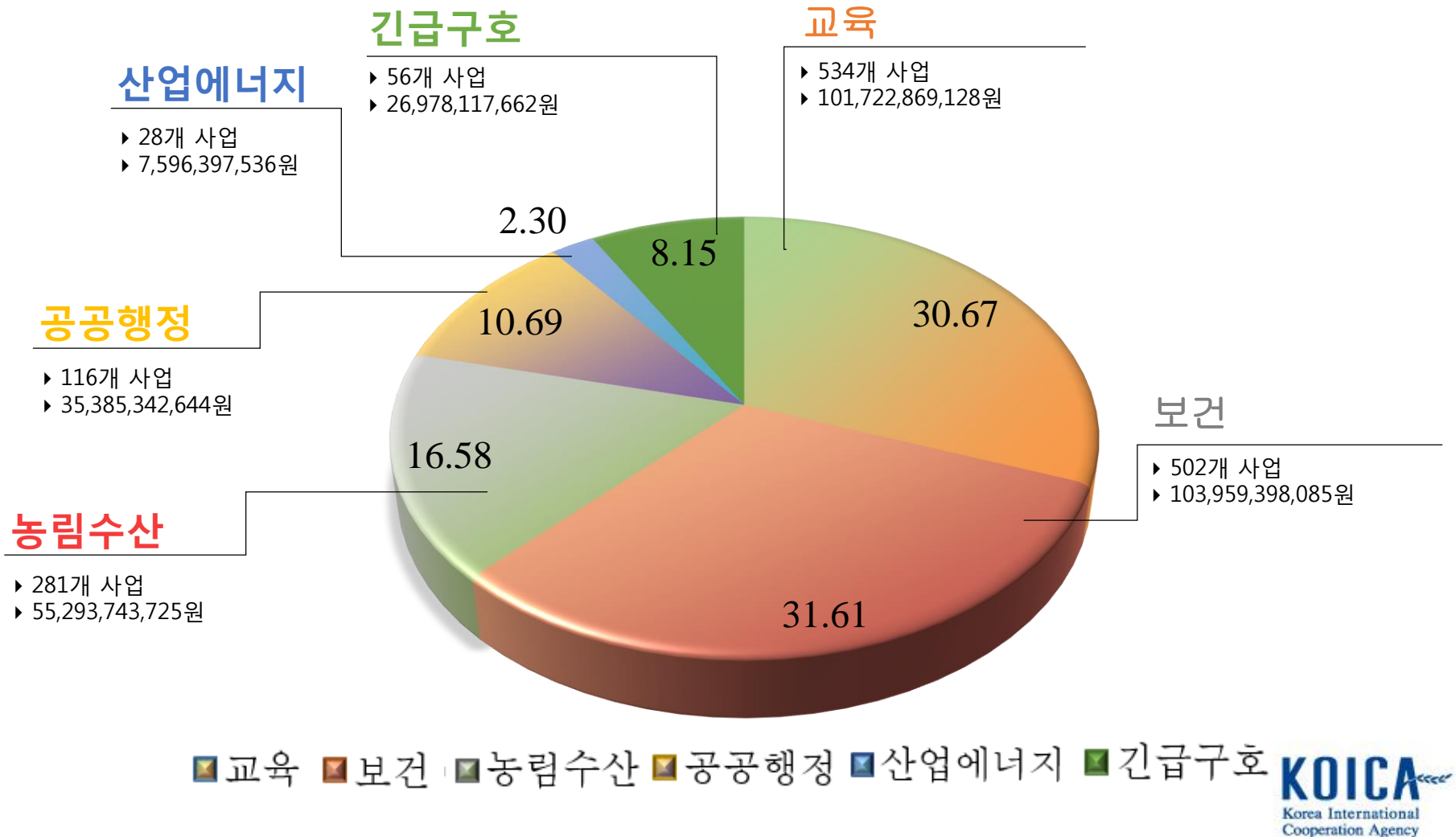
- 기간 : 1995년-2017년
- 대상 : 1,517개 시민사회, 대학, 현지 시민사회 등
- 특이사항 : 빈곤퇴치, 기업협력 제외

## ✓ 총사업비 : 3,309억원

- KOICA : 206,681,327,840원
- 파트너 : 124,208,904,7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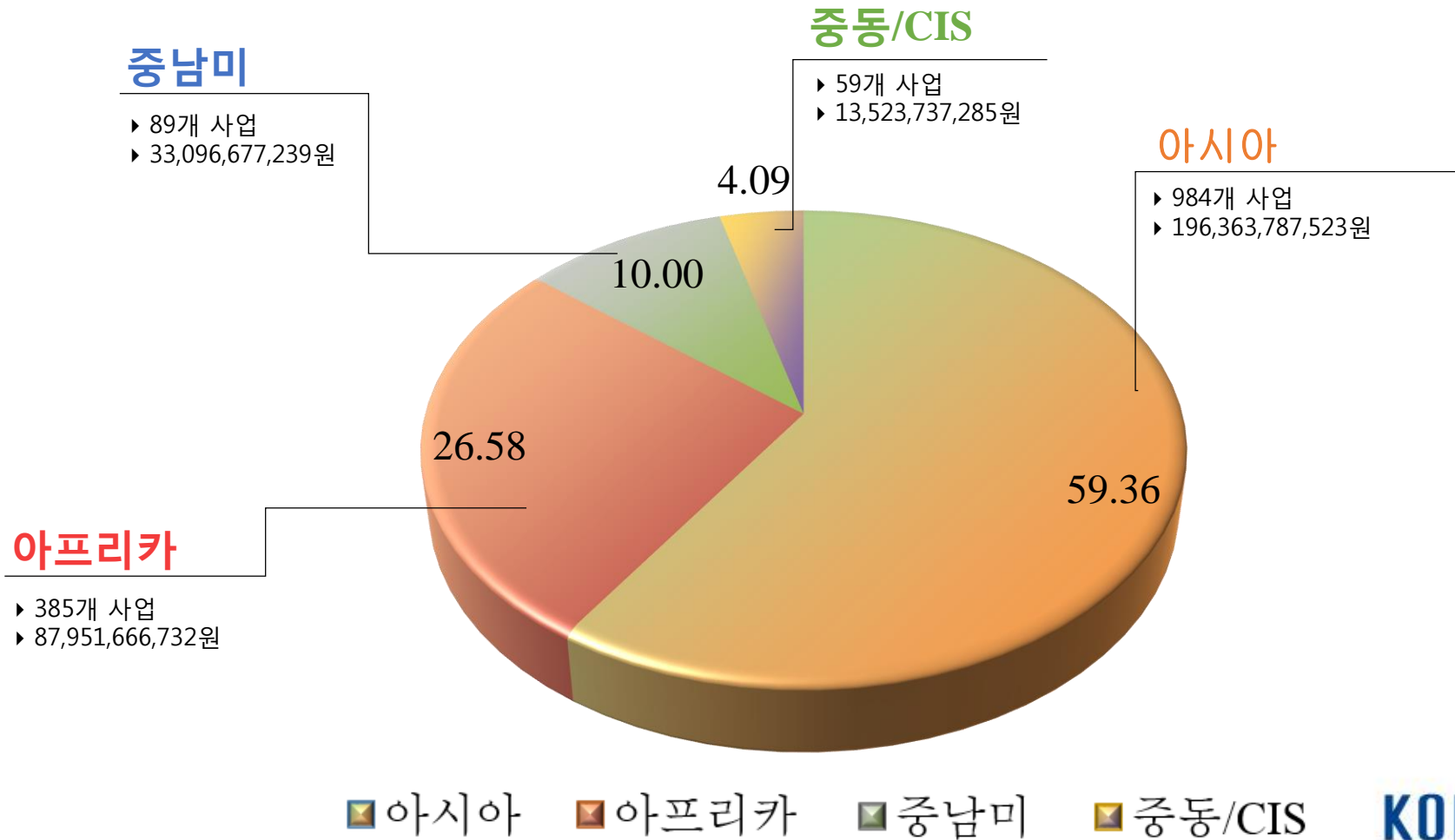
# I.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 KOICA 민관협력 사업 분야별 예산 (199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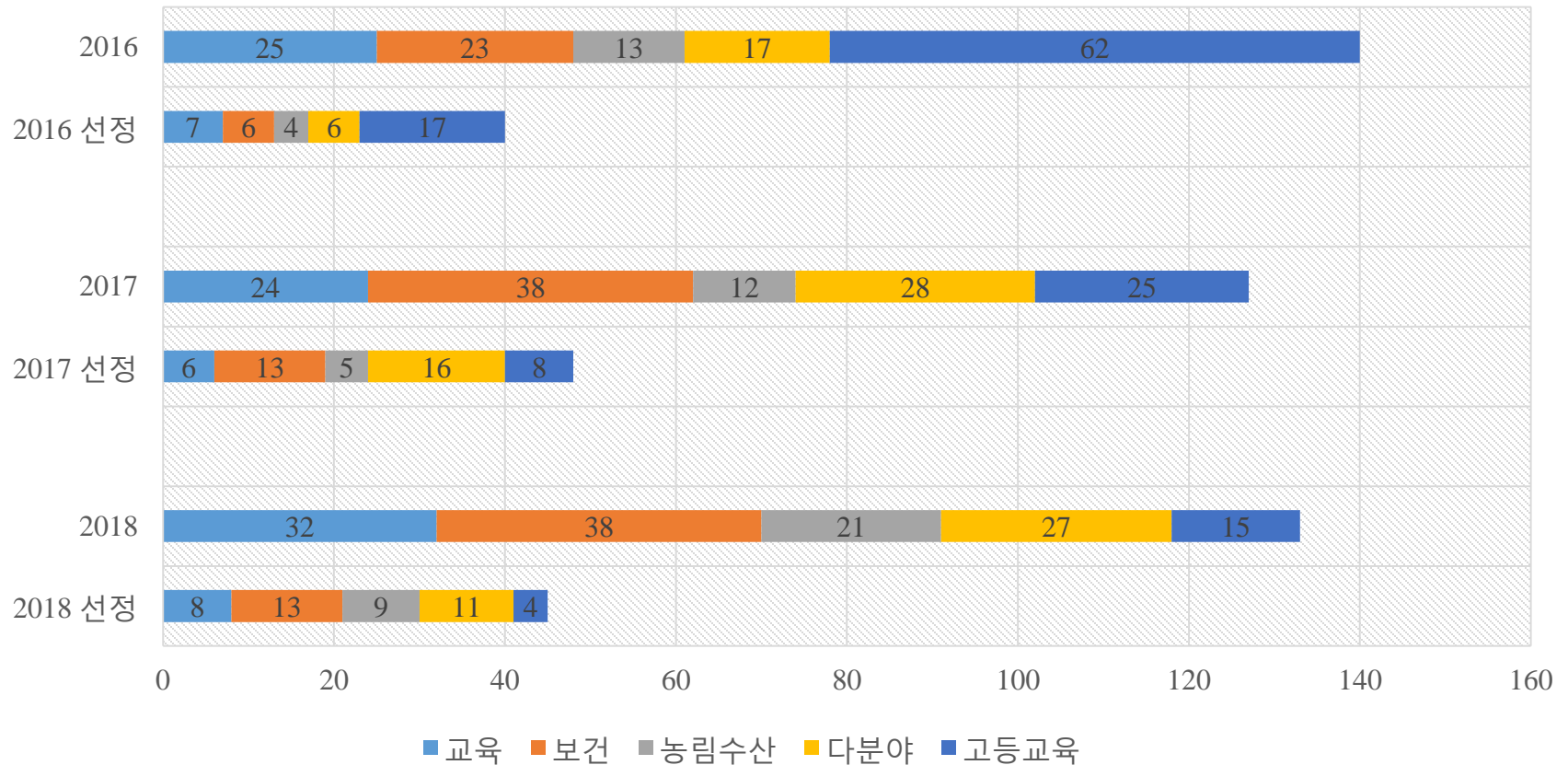
# I.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 KOICA 민관협력 사업 지역별 예산 (1995-2017)



# I.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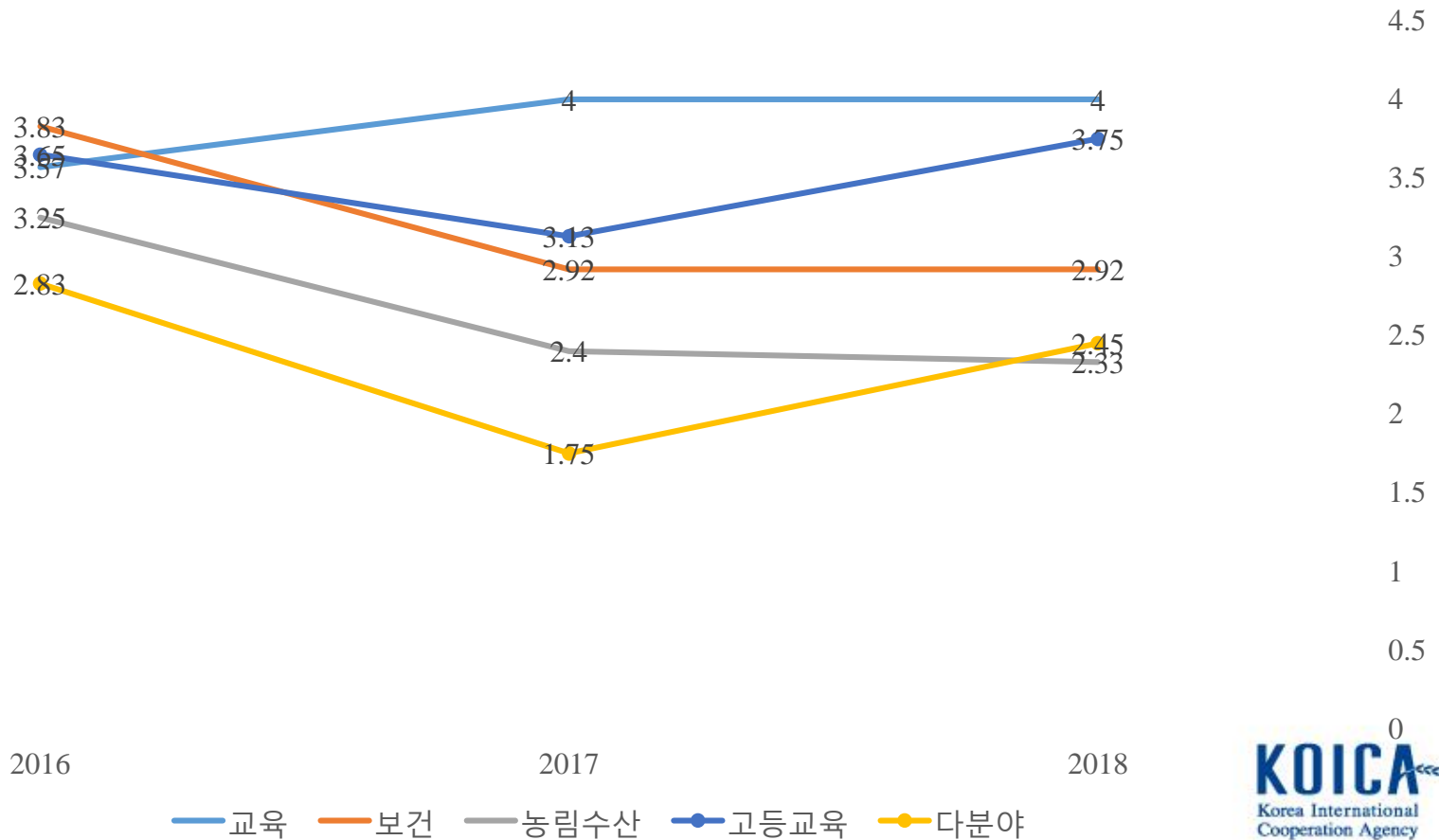
## KOICA 민관협력 분야별 선정 결과 (2016-2018)



# I. KOICA 민관협력 사업 현황

## KOICA 민관협력 분야별 선정 결과 (2016-2018)

선정결과 대비 경쟁율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고등교육의 사회적 역할

#### ■ 진리의 탐구와 사회 발전

- 지식의 전파(전통적, 자유교양적 기능 축소) + 끝없는 회의(懷疑)와 비판적 사고, 새로운 지식의 창출
- 전문직업 훈련과 고부가가치 생산 노동의 지향

#### ■ 사회의 수요와 고등교육의 역할

- 연구중심 + 우수한 교육 내용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연구자 획득
- R&D의 집중, 경쟁적 시스템 수용(자율적이며 다원화된 전문가들에 의한 통제 기반)

#### ■ 지식정보화의 심화

- 평생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이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중 핵심으로 변모
- 학습자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와 추론의 지적능력을 갖추어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프레임워크를 구조화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고등교육기관)은 사회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역할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직업적 역량을 개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개발협력에서의 고등교육

#### ■ 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1998)

- 21세기를 위한 고등교육 세계선언 : 비전과 행동
- 고등교육 변화와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최우선적 원조대상으로서 초등교육 우선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의 역할 인식)
-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지식생산이라는 점을 주목, 지식생산의 수단인 연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 ■ UNESCO Forum on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Knowledge

- 고등교육 수요와 공급의 폭발적인 증가, 고등교육 체제의 다양화, 시장화, 지식의 디지털화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
- 고등 교육, 연구 및 지식 시스템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히 개발 도상국에 초점을 맞추어 고등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 ■ SDGs와 평생교육

-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중등교육부터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까지 기술개발과 직업기술 교육훈련에 대한 방해 요소를 줄이고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사회, 문화, 생태, 경제 발전을 위한 지식의 생성 및 전파(교육 2030)
- 고등교육 역량강화 및 고급인재 양성 → 개도국 內 지속가능 발전 달성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분야 전문성 활용

- **협력국의 협력 대상 파트너기관(주체)을 구분으로 한 분야 특수성**
  - 고등교육사업의 경우 민관협력 타 주제와 달리, 협력국의 협력대상 파트너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바, 수행 주체의 분야전문성은 제한이 없음.
  - 고등교육 주제 안에 교육, 보건, 농림수산, ICT, 공공행정 등 다양한 사업 주제를 통해 민관협력사업 수행
  - 대학 및 연구기관인 수행 파트너기관은 해당 분야의 깊은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사업내용 발굴 및 형성 가능
-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업목표 설정**
  - 특정 분야 혹은 전공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형성할 경우, 해당 분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나, 사업의 수행을 통한 효과성 예측 또한 과학적(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요 및 필요성 주장, 성과 예측(산정) 등에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타당성 확보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내생적 사업내용 개발

- **사업 종료 이후 ‘사업’의 지속성 유지와 더불어 R&D 발전을 기대**
  -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활동’의 지속성 보장을 넘어, 관련분야의 연구 개발이 협력국 현지의 실정(사회, 문화, 환경적 요인을 고려)에 적합하게 수용되고,
  - 협력국 교수자 혹은 전문인력이 스스로 연구활동을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형성된 높은 가치의 지식이나 상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분배할 수 있는 구조화의 토대 마련 필요
- **해당 분야의 선진사례, 최신 학술정보의 보급 전파의 적절성 검토**
  - 협력국의 관련 분야 현황 및 수준을 진단·점검하고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내용의 개선 사항, 교육기반의 지원 방안 등을 식별
  - 단순히, 우리의 경험(혹은 관련 주제의 선도국가 경험)과 사례를 이식하고 전파하는 형태의 접근은 지양
  - 사회적 파급력과 지식 및 자본의 독점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포용적인 교육내용 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지향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개발협력 tool을 통한 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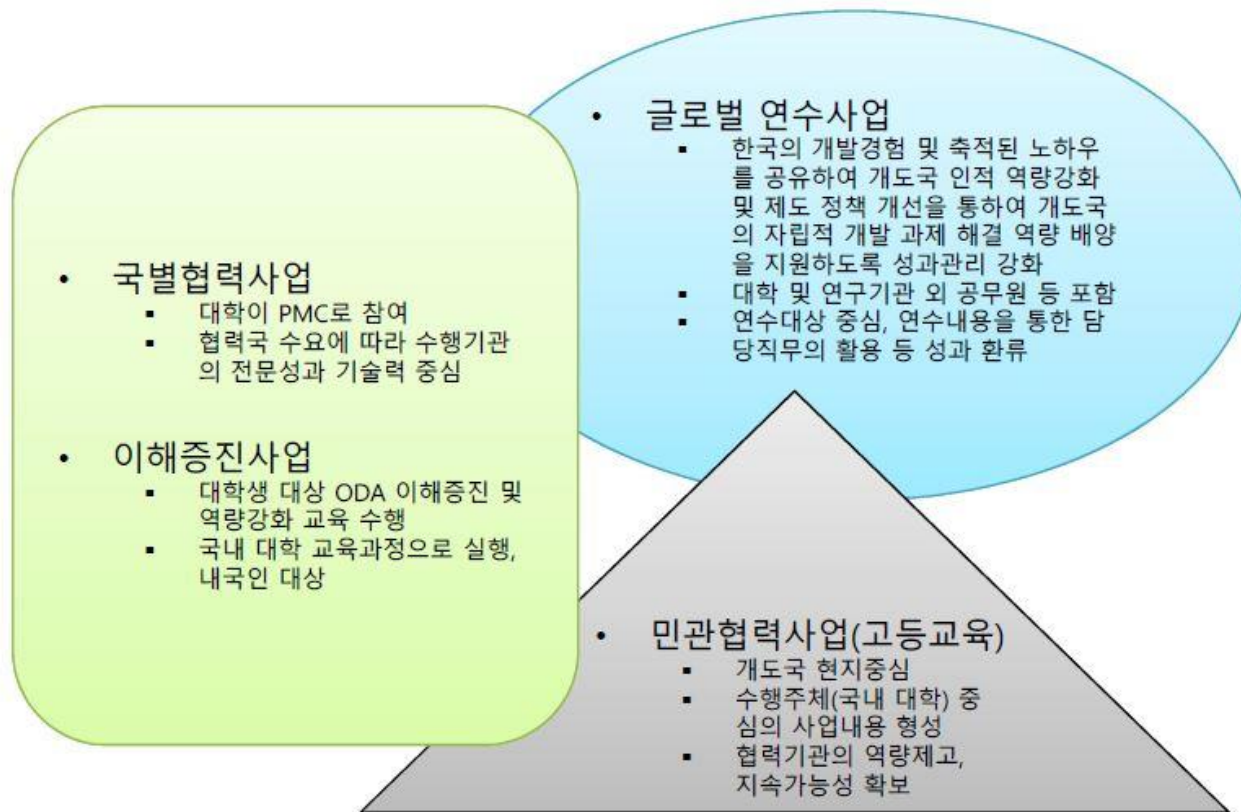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보편적 이해 기반 사업설계



## Ⅱ.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distinction



# II. KOICA 민관협력 고등교육분야

## KOICA 민관협력 고등분야 사업 고려사항 : Resilience

### ■ 위험관리

- 성공적인 성과중심 사업관리의 중요 부분이며,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방지하기 위한 위험 관리를 사업단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 사업 기획단계에서 초기에 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발생가능성 및 발생 후 결과를 예상함으로써 사업 성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위험 상황 발생시 대응하도록 함
- 위험과 기회간의 균형(이익형량) 필요
- 예방차원의 조치를 사전적으로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완벽한 방어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만큼 '사건'의 발생시(혹은 '後') 기술적인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해내가는 방식을 구조화

### ■ 위험 요소

내적요소	외적요소
이해관계자(수혜자, 국제금융기관의 고객)	프로젝트 시행 기관이 처한 관료적 환경
협력국의 기술 역량(기획, 실행 전문 지식) 제조 및 서비스 역량,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협력국의 정치 상황(개발 계획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부, 재정부, 산업부의 정책, 국제금융기관 및 기타 공여국의 정책 대응)
관리요인(관리 프로세스, 수혜자 참여, 프로젝트 관리 역량-주인의식)	협력국의 정치 체제 및 안정성
자원 부족	사회경제적 환경(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 인플레이션, 환율, 국제정치 등



# Ⅲ.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1. 파트너기관 자체분담금의 비현금성(인건비) 자원 투입 방법

-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
- “협력단이 인정할 경우, 파트너기관은 자원분담 비율의 최대 50%까지 “비현금성 자원”으로 분담할 수 있으며, “비현금성 자원”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하며, 기타 기자재 및 물건은 파트너기관 자체분담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비현금성 자원”으로 투입하는 인력의 인건비 산출내역의 검토를 위한 “고용계약서(또는 급여책정 근거), 이력서(전문가 등급 확인), 직무내역서(구체적 사업 수행 내역 검토)”를 제출하여야 함.”

(매칭비율 8:2) 1년 3억원의 KOICA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매년 자체분담금 75,000,000원 매칭 필요

75,000,000원의 50%인 37,500,000원까지는 인력(인건비) 투입을 통해 비현금성 자원으로 매칭 가능

즉, 파트너기관 에서 본래 지급하는 인건비(12개월에 대한 인건비 지급분)가(이) 37,500,000원인 1명의 참여인력을 해당 사업에 전담(업무투여율 100%)인력으로 투입시킬 경우(해당 금액은 인건비 단가, 업무투여율 등의 조정으로 여러 명의 참여인력을 활용하여 부담할 수 있음)

나머지 37,500,000원만 현금 매칭분으로 자체분담금 계좌에 입금하여 사업비 집행

(事前) KOICA는 비현금성 자원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인건비를 자체분담금으로 투입시키는 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또는 파트너기관 내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 단가 확인) 과 업무투여율을 확인 필요(KOICA는 사업기간 중 업무투여율 준수여부를 수시 monitoring 할 수 있음)

(事後)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자체분담금을 투입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인건비 지급내역(계좌이체확인증 + 4대보험 원천징수내역) 확인



# Ⅲ.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2. 사업수행 주체와, 약정상 책임주체의 분리에 따른 위험관리(대학의 경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 대학이 파트너기관인 경우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사업제안의 주체가 됨.
- 예산편성 및 사업비 집행기준, 사업비의 현지(해외) 송금, 사업비 집행 증빙의 제출, 정산 및 반납 책임 등에 관하여 소속대학의 산학협력단 업무수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공모제안서의 제출(기관장 직인 날인)은 '민관협력사업'의 공모 계획,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및 사업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근거에 따른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 3. 현장중심 사업운영을 위한 관리 계획 수립

- 협력국 대학의 현지인력이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민관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compliance 이행 등 세밀한 사업관리에 한계가 존재
- 현지에서 발생하는 변수 통제 및 적시 대응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 및 사업관리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파견인력의 활용이 요청됨.
- 사업수행주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파견인력의 활용 등이 용이치 아니하는 경우, 실현가능 한 사업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Ⅲ.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4.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한 현지조사와 기초선 설정

- 민관협력사업의 산출물(Output)-목표(Outcome)-영향(Impact)는 인과관계에 의해 구조화, 계층화된 형태로 형성되며, 각 단위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기초선(Baseline)이 존재하여야만, 사업수행으로 인한 목표치 달성(개발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음(예산 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기준).
- 공모제안서의 제출(기관장 직인 날인)은 '민관협력사업'의 공모 계획, 「비영리기관 대상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기준」 및 사업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해당 근거에 따른 사업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

# Ⅲ.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4. 사업내용 구체화를 위한 현지조사와 기초선 설정

### 예측분석·정책수립

- 개발 효과성에 대한 객관성 확보
- 공여국 간의 (지식)정보 공유
- 증거기반 지표 관리 필요
- 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와 핵심 수단으로서 데이터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분석과 추론(전망)'

### 책임성 강화

- 경험이나 직관이 아닌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 도출이 중요
-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성과의 달성 여부 판단의 근거
- 성과평가의 절차로서 데이터 등 증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도입 필요

### 데이터의 활용가능성

-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정부) 평가 등의 과정에서 찾아낸 교훈을 밝히고 증거에 기반한 활동 내역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협력 사업의 설계와 사후관리 추진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

# Ⅲ. 제안서 작성 착안사항

## 5. 역량 개발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 분야의 본원적 특성에 따라, 수혜대상에게 양질의 교육내용 및 혁신적 교수방법의 제공을 통해 학업능력의 성취 또는 전문역량의 향상을 도모
- 정성적 가치 증진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증명 도구의 부재(주관성·임의성의 함정)
- 분야별 보편적 역량 수준의 척도 탐색 및 활용을 통한 객관성 확보 강구

## 6. 정책적 Impact 확산과의 연계 or 포용적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 밀착형 활동 연계

- (정책)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Lasswell and Kaplan)
- 사회문제로부터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문제 확인, 정책 분석 및 결정, 정책 집행, 그로 인한 효과성 확인, 정책 평가로 환류
- 분야 전문성을 지역사회, 혹은 시민사회 기반에 어떻게 전달하고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사업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

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합니다.

# 감사합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ORLD  
FRIENDS**  
KOREA